

시론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항상 무슨 일인가 벌어진다.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영상이 담장을 넘지 않는 일도 있고, 역사적 사건이어서 담장을 넘어 먼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다. 역사적인 일도 두 갈래가 있다. 옛 GPT의 출현처럼 특정 국가에서 탄생했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여 해당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다.

얼마 전 책 한 권이 도착했다. (사)개성공단 기업협회 상무를 맡으셨던 김서진 박사의 『평화주권의 길』이란 책이었다. 개성공단이 어떻게 탄생하고, 문을 닫게 되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은 정치적 산물이었지만, 책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기록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개성공단이 한국에만 의미 있었다거나, 그 의미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런 평화가 개성공단의 탄생과 폐쇄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명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의 의미를 기록자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았다. 역사가 흘러갈 때, 모두가 기록자로 나서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록자는 드물다. 기록하는 자는 역사적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복잡한 입장들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순탄치도 편안하지도 않다.

역사적 사건마다 대책에 선 이들이 있고, 기록자가 아무리 객관적 태도를 취하려고 해도 기록물이 대책에 선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런 오해로 인해 기록자가 사명감을 갖고 수행하는 힘든 길을, 역사적 사건에서 취한 자신들의 태도가 깊이 읽히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막아선다. 그것이 언제나 존재했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역사적 풍경이다.

불편한 것들을 제거한 기록을 '역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역사는 승자가 재편하는 기록"이라는 해석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모든 기록이 그에 해당한다면 역사적 기록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다행히도 '역사'의 존재 이유를 묻고 기록하는 김서진 박사님 같은 이들이 있다. 그 기록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개의 사람들이 마다하는 고난을 각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록하는 이는 언제나 간두에 선다. 간두가 백 척인지, 오십 척인지는 따질 일이 아니다. 서지적으로 하는 이들은 한 척의 간두조차 피해간다.

슈테판 츠바이크(1881-1942)는 『에라스무스 평전』에서 가톨릭과 마르틴 루터(1483-1546)의 촉발에 의해 탄생한 신교 간의 극렬한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던 격랑의 시대에, 어느 한쪽을 지지해 주기를 요구받았으나 끝까지 한쪽을 지지하는 일을 피하려 애썼던 위대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1466-1536)가

평화를 기록하는 사람

남긴 사유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다.

"인류 내부에서 폭력을 가져오는 커다란 모든 갈등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종족에 내재한 인류의 단순한 폭력 의지라기보다 그 폭력 의지를 추동하여 다른 인류 집단에 덤벼들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을 편드는 편협을 피하려했던 에라스무스의 사유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인 세대나 시대가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에 평화로운 변화가 자주 찾아왔겠지만, 그런 운 좋은 변화는 드물었다. 변화를 촉발시킨 마르틴 루터조차 변화가 만든 살풍경을 우울하게 바라보아야 했다.

변화는 극단이 촉발할 수 있지만, 그 촉발을 평화로 연결하는 것은 극단에 선 사람들이 아니다. 김서진 박사의 『평화주권의 길』이라는 진영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읽히지 않고, '평화를 위한 기록'이란 기록자의 호소로 읽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빌리 브란트(1913-1992)는 "동독과 수교를 맺은 국가와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방정책과 더 파격적인 대동독 정책을 통해 통일의 기초를 다졌다. 빌리 브란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다.

"평화"는 가벼운 구호가 아니다. 격랑의 충돌과 드러나지 않는 암중모색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이어진 후야 얻어지는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는 기록자가 있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그런 눈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평화가 얻어진다.

社說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현재 진행형이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전 사회의 초석으로 만들고자 했던 바램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절박한 외침은 외면됐다"며 직격하고 나섰다.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까지 더해 등록 말소를 권고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시행·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논의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현장에서 열린 추모식 내내 유가족들은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렸고, 참석자도 엄숙한 표정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겠다.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5층 규모 철거건물이 무너지면서 바로 앞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어긴 불법 공사가 원인으로, 2년이 지났다.

철거를 맡긴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불법을 강행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현장 확인을 안한 감리자 등 직접 책임자로 지목된 9명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시는 매년 6월9일을 철거건물 붕괴 참사 추모일로 지정했으며, 현산과 유가족들은 추모 공간 조성에 대한 구제 방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는 관련 기록물을 함께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재개발 구역은 보상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4동을 제외하면 해체 공정이 마무리됐다.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한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때문이다.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금씩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매우 더디다. 무심한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더 많은 시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일과 염려스럽다.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3분. 가족을 잃은 유족, 부상자들은 가능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그 날에 갇혀버렸다. 참혹한 슬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약 사범 잇따라 적발 광주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광주에서도 마약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최근 광주 광산구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 등을 수차례 공동투약한 혐의로 지인이거나 동창 관계인 7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쫓고 있던 판매책의 대포통장에 누군가 무통장으로 입금, 마약을 구매할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계좌를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40대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숙소에서 나오다 현금 100만원과 필로폰이 든 봉투를 떨어뜨렸고, 제 발로 인근 지구대로 향했다.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여러 겹의 휴지로 싸인 흰 가루를 수습한 여경 경찰관의 질문에 '깨미를 쫓는 봉산'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반복하는 등 형질수설하다 끝내 투약 사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 광주·전남지역 수사실무협업체를 구축한 후 마약 밀수·유통범죄를 집중 수사해 공급사범 총 1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외국인 불법체

류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수한 후 SNS로 전국에 유통하고 마약 공급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심각한 증상을 야기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언론 매체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검거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일상 곳곳으로 보다는 은밀하게, 더욱 깊숙하게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 더 대담하게 구매하고 이후 행동 또한 거침이 없다.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선다. 10대는 물론 20-30대 청년들까지 헤어나기 어려운 탓에 속속 빠져들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는데도 대수롭게 않게 여긴다. 문제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으로 동남아에서 실행하는 '야바'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당국은 공언한 대로 철저히 수사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중형을 내려야 한다. 마약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치칼럼



김용민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송원대학교 교수

청년 1인 가구, 사회적 돌봄 거버넌스로 접근해야

구 하면 노인 1인 가구를 많이 생각하는데 최근 중장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특히 19세부터 39세인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무슨 이유든 간에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취업, 결혼 등 청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보다는 상당, 관계 등 다차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하다. 청년 1인 가구는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는 높으나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청년 1인 가구에 무엇을 줄 것인가? 현재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주택 지원, 금융 지원,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사회적 지원 등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그들과 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청년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야 한다. 몇 번이고 찾아가서 어려움은 없는지, 생활은 어떠한지, 고민은 무엇인지를 들는 일로부터 모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광주시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 시도가 필요하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는 취업과 소득을, 가족 측면에서는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거와 안전을, 문화적 측면에서는 생

활양식과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취업이 되면 주택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결혼은 하지 않을까?"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정책 실패가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누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것인가? 광주시에는 청년 관련 유관기관이 있다. 청년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자립지원센터, 청년살다디자인센터, 청년직업트레이닝센터와 광주시와 구청의 청년정책 주무부서, 청년 정책전문가, 청년시민단체, 청년 당사자 등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그룹을 결성하고, 이 그룹에서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광주 청년정책을 지속해서 생산·확대·공유하고, 청년들을 만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지원해야 한다. 시설과 재가 어르신 돌봄을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있듯이, 장애인 돌봄을 위해 장애인 생활지도사·활동지도사가 있듯이, 취약계층 청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서포터즈가 필요하다.

풍향지현(風向之顯), 청년들에게는 장애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이다. 즉 청년들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야 한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청년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청년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풀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독자투고



독자투고

무더위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에어컨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위해 에어컨 안전 점검도 해보시면 좋을 거 같다.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천168건(사망 4·부상 32명), 재산 피해는 5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월별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6월부터 점차 증가하며 무더운 여름철인 7월, 8월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전선 노후화로 절연열화 의한 단락 등 전기적 요인(75.4%)이 가장 많고, 담배꽂이로 인한 부주의(8.6%), 과열이 주원인인 기계적 요인(8.1%)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에어컨 점검을 해야 한다. 일단 에어컨 사용 전에 실외기를 점검해야 한다. 실외기 과열과 관련, 실외기 주변 먼지나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고 발화 위험 물품들도 다 치워야 한다. 또한, 실외기 화재의 70% 이상이 전기적인 요인인 만큼 실외기 전선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전선이 훼손되거나 노후한 경우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꼭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요즘엔 실외기 실외기 설치업체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환풍구(루버창 등)를 꼭 개방한 상태로 가동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점검하고 예방해야 한다.

〈김재희·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침묵은 詩

이밥취쌈

김민정

강원도 삼척에는 첩첩산중 많고 많지 어린 날 엄마 따라 약초 캐러 올라가서 점심 때 한 바구니 짜 씨름에다 씻어 먹던



반찬은 무슨, 반찬 고추장 한 종지뿐 보리밥 한 쌈 얹어 도르르 말아주던 울 엄마 손길만 같던 초여름 안겨 든다

(시집 '펼쳐 펼, 꽃잎', 월간문학출판부, 2023.)

[시의 눈]

'초여름'은 어머니 손길로 옵니다. 그 푸짐한 식탁처럼 푸성귀 철입니다. 무렵, 어머니 반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네요. '이밥취쌈'이 무성합니다. 이 비비추가 참 깨끗하다 싶었는데 씹으로도 먹네요. 학교에서 오면 어머니는 시원한 '쌈' 한 사발, 그리고 그 때 온 된장에 마늘·참깨, 참기를 두어 방울 섞어 쌈장을 준비했지요. 구뭇한 김에 꿀맛이었네요. 갓 숙아온 상치, 공취잎에 매운 고추 분질러 넣고 쌈을 먹던 그 여름은 건강했지요. 오늘 아침 처제네가 상치·쑥갓·꽃마늘을 주며 점심으로 쌈을 해 먹습니다. 고기를 한점 없으면 좋겠지만 사라갈 새 없이 상을 차립니다. 조운 선생의 '상치쌈'이란 시조엔, 미터터지게 쌈을 넣은 순간 날아가는 나비에 팔러 그만 힘자위를 드러낸다는 유희가 있습니다만, 나 마침 월드컵 U-20에 뛰는 최석현의 헤더 골을 스쳐보다 그 지경에 노출됩니다. 오, 필승 코리아 생방송! 김민정 시인은 삼척에서 나 1985년 시조문학 창간 25주년 지상백일장에 장원으로 등단했고, 시조집 '나, 여기에 눈을 뜨네'(1998), '창과 창 사이'(2020)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상생의 자연과 자아에 대하여 온기를 불어넣거나 사랑의 서정을 깊히 고집어내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 고 국 650-2072	광 고 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율 국 650-2010	편 집 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 획 사업 국 650-2079	업 무 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